

“4·3 왜곡 현수막 직접 수사대상 안돼”

■ 이원석 검찰총장 제주4·3평화공원 참배

“제주4·3 재심, 앞으로 더 속도감 높이도록 노력”
“오 지사 선거법 수사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4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더 속도감 있게 4·3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부당하다며 항고한 것에 대해선 “명예회복이라는(재심의) 방향성은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4·3은 일어난지 70년이 넘었고, 앞으로 70년이 더 지나고 나서도 역사가 잊혀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재심 절차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장은 4·3

직권 재심 수행단 인력 보강 필요성에 대해선 “경과를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현수막을 내건 정당들을 상대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4·3특별법에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해당 현수막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4·3의 역사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들이 큰 우려를 가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4·3을 왜곡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해도 국민들이 4·3을 잘 이해하고 있어 해당 현수막의 주장을 믿을 가능성이 적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총장은 또 이날 오영훈 제주지사가 검찰이 야당 도지사를 탄압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제주지검이 적절하게 수사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하는 것이지 다른(정치적) 고려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총장의 4·3 평화공원 참배는 지난 2021년 김오수 전 총장 이후 두번째다. 이 총장은 참배 뒤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기부한 데 이어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손 심어 올레’ 행사에 참가했다.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이륜차 불법행위 무인카메라로 ‘찰칵’

경찰·자치경찰위원회 삼무공원 사거리서 시범 운영
작년 이륜차 교통사고 382건... 13명 사망·476명 부상

과속과 신호위반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인 단속 장비가 도입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시범운용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단속 장비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고도화된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륜차 통행이 빈번해 사고 우려가 높은 인제사거리와 제주 일중사거리, 광양로터리 등 10개 구간에 대한 사고 분석과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이중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삼무공원 사거리를 우선 선정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오는 7월부터 설치 운영한다.

시범운영 이후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진적으로 장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향후 기술 개발 검증이 완료되면 후면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 이외에도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등 새로운 단속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 장비 도입 과정에서 주민 혼란이 없도록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및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전체 교통사고 4039건 중 이륜차 사고는 382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476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2021년 448건의 사고에서 8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김도영기자

과태료 처분 꿈쩍않는 뽐뽐한 사람들

최근 5년 서귀포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10대 중 2대꼴 미납

시 “총 미납액 3억원 하루 10건 꼴 신고돼”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1일 평균 6~7건가량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대상 차량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에도 매년 20%에 달하고 있어 문제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위반 사례로 적발된 건은 불법주차(과태료 5만원) 2338건,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109건, 표지위반(200만원) 1건 등이다.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수납비율은 71.6%에 그치면서 미납액은 7007만원에 이른다는.

올해 적발된 건수도 불법주차 405건인 가운데 수납건수는 222건에 그치면서 수납비율은 54.8%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른 미납액은 1643만원이다.

이처럼 매년 2000건 이상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반면 과태료 처분에도 매년 미납률은 평균 20%를 상회하면서 최근 5년간 미납건수는 2230건에 미납액은 2억 8526만원 상당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하

루 10건꼴에 달한다”며 “과태료 통보와 독촉 등에 이어 6개 이상 미납시 장기제납자로 간주해 차량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오는 4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 단속대상, 과태료 부과대상 등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 민원창구 및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고, 홍보 안내문구를 전광판으로 송출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돌덩이 묻지마 폭행 20대 법원, 징역형 징유2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돌덩이로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30분쯤 제주시 대학로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우울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영기자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제주 4·3 평화공원 진입로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됐다. 강희만기자

4·3 왜곡 현수막 훼손 60대 재물손괴혐의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보수 정당이 도내 곳곳에 내건 '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현수

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 보수 정당이 내건 4·3 현수막 10여 개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오현아, 빛나라 !!
오현고등학교 서귀포·남원지역 동창회 정기총회

희망의 봄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3년 제37차 오현고등학교 서귀포·남원지역 동창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2023년 3월 30일(목) 18시30분
- 장소: 서귀포 파크션아호텔 연회장
- 안건 1) 2022년 사업실적 및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3) 임원개선의 건
- 기타
- 문의 회장 문한성(22회) 010-3696-5595
총무 원상호(31회) 010-9572-9372

오현고등학교 서귀포·남원지역 동창회

고산초등학교 총동문회 2023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하오며,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제9대·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2023년 3월 31일(금) 오후 7시
- 장소: 아젠토피오레컨벤션
- 심의사항
 - 제1호 의안: 20년~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임원 개선의 건
 - 제3호 의안: 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기타 협의사항
- ※ 연락처: 회장 현승철 010-3483-0029
수석부회장 박영식 010-2387-1242
총무부장 고상욱 010-3696-2271
재무부장 이동성 010-7712-2726
- ※ 임원 및 각 회기별 이사님께서 많은 동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립니다.

고산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현승철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사주명리

○ 교육시작: 2023년 4월 7일(금) ~
※ 매주 금요일 주 1회, 총 30주 수업

○ 모집인원: 10명 내외

○ 수업 내용:
· 「사주명리」(입문, 기초부터)
※ 강의 교재는 소학당 비치

○ 수 강 료: 월 80,000원(월납기준) ※ 교재비 별도

○ 장 소: 소학당한문학원(제주시 서사로 108, 2층)

○ 접수상담: [전화접수·신청가능]
☎ 064-757-4561, H.P 010-3077-4561

요일	시간	수업과목	수업 시작일
금(매주)	오후 4시 - 5시 30분	『사주명리』	4월 7일

※ 「사주명리(기초)」 ※ 수강 후 「9층 나경운용,반으로 이어짐」

講師/海山 李龍林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석사)
- 해산역학원·소학당한문학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한문」, 「생활역학」 강사
- 도민대상(무료)사서삼경읽기 강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 10분, 12년차 진행 중)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생활역학상임지도사」, 「경서강독지도사」 강사역임

제주시교육청 등록 177호
海山易學院 · 소학당한문학원